

Toyota, 브라질에 에탄올공장 건설

자회사 Tsushyo상사 통해 Petrobras와 합작으로 ... Mitsui와도 계약

Toyota Motors의 자회사 Tsushyo상사가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 Petrobras와 공동으로 에탄올(Ethanol)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sushyo상사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중동, 중남미에 대한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Toyota Tsushyo상사는 Petrobras와 공동으로 브라질 중부 고이아스에 사탕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etrobras는 7월 Mitsui물산과 300억엔의 에탄올 합작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일본기업이 바이오에탄올의 원료 재배와 생산·판매에 이르는 과정에 일괄 투자를 실시하기는 Mitsui물산이 처음이다.

Petrobras와 Mitsui물산은 상파울루 북서부 내륙 지역에 위치한 3만여ha의 농지와 전용공장을 이용해 2009년 후반부터 에탄올 생산을 시작해 3년 후에는 생산량을 20만kl로 확대하고 주로 일본과 미국으로 수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과 일본은 7월 일본에서 열린 G8(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의 기간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개별 회동을 갖고 차세대 바이오에너지 공동연구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Petrobras는 미국 ConocoPhillips와도 에탄올 연구·생산·판매 분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여서 조만간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07>